

예비후보 속속 등록...전통시장 등 찾아 '얼굴 알리기'

설 연휴 달아온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선 선거 열기

설 연휴 기간 동안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입후보자들이 본격적으로 표밭 다지기 경쟁을 펼치는 등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3일 시작된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에도 광주·전남지역에서 10여 명이 출사표를 내는 등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선 선거 열정이 시작됐다.

19일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 둘째 날인 지난 14일 이용섭 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광주시장 선거에, 박해자 전 국회의원은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예비후보로 각각 등록했다.

6·13 지방선거 광주·전남 시·도지사, 교육감 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일 첫날인 지난 13일에도 광주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광주 동남을 지역위원장과 나경재 정의당 광주시당 대변인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전남지사 선거에도 이성수 민중당 전남도당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또 광주시교육감에는 이진선 전 광주교대 총장이, 전남도교육감에는 장석용 전 전교조 위원장이 각각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국회의원 재선거의 경우 민주당 서삼석 전 무안군수가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이날 가장 먼저 등록했다.

출마예정자들은 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자신들의 포부를 밝히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입후보자들의 움직임은 더욱 분주해졌다.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광주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낸 이병훈 민주당 광주동남을 지역위원장은 설 연휴 동안 지역구를 돌며

이용섭·박해자·이병훈

나경재·이성수·이진선

서삼석 등 10여명 등록

지역구 돌며 민심 청취

현직 사퇴 부담 등록 늦춰

얼굴을 알렸다. 이용섭 전 부위원장은 설 연휴 광주 밑바우시장을 시작으로 대인, 남광주, 양동, 송정시장을 방문해 민심을 청취했다.

박해자 전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명절 당일 근무하는 경찰지구대와 119 안전센터를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반면, 현직 단체장 등을 맡고 있는 출마예정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늦추고 있다. 현직을 사퇴하는데 따른 부담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이 정치 행보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면 등록 전까지 사퇴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후보등록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 광주시당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출마자의 공직자 사퇴시한은 3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현 단체장 등은 이 무렵에 본격적으로 선거에 뛰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민주평화당 조배숙(가운데) 대표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설 민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석 민평당 “목표는 교섭단체”...상임위원장도 노린다

원내 영향력 극대화 총력

‘비례대표 탈당’ 법 개정 추진

민주평화당이 범(진)보 진영의 ‘캐스팅보트’를 지렛대 삼아 원내 영향력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빠른 시일 내에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하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8일 민평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원내지

도부는 국민의당 이탈 의원들을 추가로 영입,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채우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민평당 의석은 총 14석이다. 하지만 ‘탈당시 의원직 상실’ 규정 때문에 바른미래당에 남아 있는 비례대표 이상돈·박주현·정정숙 의원과 국민의당을 탈당한 이후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손금주·이용호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사퇴 의사를 밝히며 거취 문제를 고심 중인 비례대표 박선숙 의원까지 영입한다면 20석을 채울 수 있다.

민평당은 바른미래당을 상대로 ‘비례대

표 탈당 조치’를 계속 요구하는 동시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합당 시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의 탈당을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거나, 아예 다당제의 취지에 맞게 교섭단체 요건을 15석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평당은 아울러 오는 6월 전후로 예상되는 하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교섭단체에 준하는 ‘실리’를 거두겠다는 각오도 내비치고 있다.

민평당은 국회에 쌓여 있는 정부·여당의 중점 개혁 과제와 오는 9월 임기가 종료

되는 헌법재판관 4명의 국회 인준 등을 지렛대로 삼아 원구성 협상에서 여권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2명의 국회 부의장 중 1명을 민평당에서 선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최근 바른미래당, 민평당 출범과 함께 ‘신(新)다당제’ 구도가 형성되면서 예전의 관행대로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만큼 향후 민평당이 얼마만큼의 협상력을 발휘하느냐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편안한 설 명절 보내세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이형석 위원장과 당직자들이 지난 15일 광주송정역에서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반갑게 맞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제공〉

백의종군 선언 안철수 지방선거 ‘플레이팅 코치’ 맡나

선대위원장 맡아 선거 지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도

바른정당의 탄생과 함께 백의종군을 선택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6·13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단 안 전 대표는 그동안 ‘당이 원하는 역할을 마다치 않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피력한 만큼 서울시장 등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으로 안 전 대표는 서울시장과 서

울 송파를 재선거 중 한 곳에 도전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박주선 공동대표가 최근 안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 “50%를 넘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안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면 민주당과 2파전 구도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지방선거관 전체를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장과 더불어 송파를 재선거 출마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된다. 하지만, 정치

적 명분과 상징성, 그리고 전체 선거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다.

안 전 대표가 지난해 대선 때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했고, 또 원래 지역구인 노원병이 아니어서 명분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18일 “노원병을 버리고 송파에 출마하는 방안은 명분이 부족해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꾸준히 들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송파를 출마설이 사실이 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또 안 전 대표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당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선대위원장을 맡아 지방선거 전체를 지휘하고 선거 흥행을 도모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당내에서는 안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직접 맡아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었고, 안 전 대표도 이에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즉, 안 전 대표는 선거를 이끄는 ‘감독’과 선거에 직접 출마해 뛰는 ‘플레이어’의 역할을 동시에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NT 하나투어

무안 출발

오사카 대한항공
2018년 2월 15일, 18일, 22일, 25일 4회!

세부 팬퍼시픽항공
~ 2018년 3월 31일 매주 수, 토 출발

보라카이 팬퍼시픽항공
~ 2018년 3월 29일 매주 목, 일 출발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총장점
062) 228-1199

안심경제 캠페인 | Fair Price 공정한 가격, 즐거운 여행

즐기로운 무안출발 해외여행

설연휴, 겨울방학, 봄방학을 완벽하게 즐기는 방법

<p>하나Pack 클래식 JOPF01_KEA</p> <p>[369프로모션] 특급호텔+아리마 온천</p> <p>오사카/교토/나라/고베 3일, 4일</p> <p>총 상품가격 1,390,000원~</p> <p>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없음 / 선택경비 있음</p> <p>🕒 2/15(목), 18(일), 22(목), 25(일)</p> <p>✈ 대한 항공</p> <p>📍 무안 → 오사카(2/3) → 무안</p> <p>🍷 특식 3회(가마메시정식, 스시정식, 사브샤브)</p>	<p>하나Pack 캐주얼 APPF10_BY1</p> <p>[한정특가] 일급리조트+세일링보트</p> <p>보라카이 4일, 5일</p> <p>총 상품가격 618,800원~</p> <p>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p> <p>🕒 2/1(목)~3/29(목) 매주 목, 일 출발</p> <p>✈ 팬퍼시픽 항공</p> <p>📍 무안 → 보라카이(3/4) → 무안</p> <p>🍷 특식 1회(아도보 특식)</p>	<p>하나Pack 캐주얼 APPF01_BY5</p> <p>화이트샌드리조트+발마사지</p> <p>세부 4일, 5일</p> <p>총 상품가격 687,000원~</p> <p>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p> <p>🕒 2/1(목)~3/28(수) 매주 수, 토 출발</p> <p>✈ 팬퍼시픽 항공</p> <p>📍 무안 → 세부(3/4) → 무안</p> <p>🍷 특식 2회(샤브샤브, 아도보 백림)</p>
---	---	--

■여행상품 가격표란(부) 유용항공료, 공항이용료, 전정항공료, 관광전송차량요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요금 등 반드시 고액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용항공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항공권, 항공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 [사자] 해당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대비용]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정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9층(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 호실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참수 권고 ●여행 금지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